

중세한국어에서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에 대하여*

김 태 우**

[초 록]

중세한국어에는 세자리 서술어의 [대상] 논항에 부사격 조사 ‘로’가 표지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대상] 논항이란 물리적 또는 추상적 이동의 대상이 되는 개체를 뜻하는 것으로 위치 이동, 수여, 발화, 전환, 사유 동사 등이 [대상] 논항을 필요로 한다. 이때 ‘로’는 반드시 [수혜자, 도달점] 논항에 선행하여야 하며 한문 원문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가 없더라도 목적어가 전치되어 있는 경우, 이 목적어에 ‘로’가 표지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한국어에는 없는 것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첫째, 이를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세계 여러 언어에서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목적어의 격표지가 바뀌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중세한국어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산학협력단 연구원

주제어: ‘로’, 세자리 서술어, 비정형적 격표지, 강조, 목적어 전치
‘ro’, Ditransitive Predicates, Differential Object Marking (DOM), Emphasis,
Object Preposing

이와 같은 유형의 언어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와는 다르게 ‘로’는 대격 표지로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 ‘로’를 전치된 목적어의 유표성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 표지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이때 ‘로’는 도구격 조사로 서술어의 행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현대한국어 동남 방언과 동북 방언의 일부에서 대격 표지가 ‘로/르’로 실현된다. 이들은 각 방언에서 대격 조사 ‘을/를’이 음운 변화를 겪어 형성된 형태로, 중세 한국어의 [대상] 논항에 표지되는 ‘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요소이다.

1. 서론

현대한국어에서 ‘로’는 부사격 조사로서 방향, 도구, 원인, 재료, 변화의 결과 등의 기능을 한다. 중세한국어에서도 ‘로’의 기능은 큰 차이가 없다.¹⁾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1)과 같은 예는 현대한국어에서 보기 힘들다.

- (1) 가. 짜해 사느닌 목수미 섯를씨 殺鬼 짜해 걸안조르로 常을 삼고
 (地居는 命促故로 殺鬼 | 以踞地로 爲常호고) <법언 2:119b>
 나. 어픈 손과 밋미즌 마치로 갈홀 밧고디 아니 호야도(伏手滑
槌로 不換劍호야도) <금삼 3:14a>

(1)에 사용된 서술어 ‘삼다’와 ‘바꾸다’는 현대한국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데, 조사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다. ‘삼다’와 ‘바꾸다’는 전환 동사로서 주어 이외에 ‘변화 이전의 모습’과 ‘변화 이후의 모습’에 해당하는 성분을 요구한다. 현대한국어에서는 ‘변화 이전의 모습’에 ‘을’이 결합하고 ‘변화 이후의 모습’에 ‘로’가 결합하는 데 반해, 중세한국어에서

1) 변화의 결과로 쓰인 ‘로’는 중세한국어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는 (1)과 같이 조사의 결합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가), (1나)에서 ‘변화 이전의 모습’은 각각 ‘싸해 걸안좁’과 ‘어픈 손과 밋미즌 마치’이고, ‘변화 이후의 모습’은 각각 ‘常’과 ‘깊’이다.

또 다른 예로는 (2)와 같이 수여 구문의 직접 목적어에 ‘로’가 결합하는 예가 있다.

- (2) 가. 國大王이 모든 나랏 일로 太子를 分하야 맞디며(如國大王이 以諸國事로 分委太子하며) <능언 8:27a-b>
 나. 그윗 金으로 어미를 주시니라(而以公金으로 賜母하시니라) <내훈 3:28a>
 다. 有蘇氏라셔 姐己로 紂의게 드러늘 <내훈 1:3b>

여기에서 ‘로’에 결합하는 명사구는 수여 구문에서 소유주의 변화를 겪는 요소, 즉 [대상(theme)]역²⁾의 논항이다. 현대한국어라면 [대상]역의 문장 성분에서 ‘을’이 결합하였을 만한 문장이다.³⁾ 또한 [수혜자(recipient)]역의 논항에는 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대한국어에서는 ‘을’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로’가 나타나는 현상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적된 것이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욱(1973, pp. 29-32)는 중세한국어에서 ‘을’에 대응하는 ‘로’가 있음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적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의 문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보다는 ‘을’과 ‘로’가 통용되는 방언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을’과 ‘로’의 어원적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이후 이 문제는 하귀녀(1994)에 의해 다시 다루어졌다. 하귀녀(1994, pp. 38-43)은 세자리 서술어 구문에서 나타나는 ‘로’의 통사론적 성격에 집중하여,

2) 가독성을 위해 의미역은 대괄호([]) 안에 적을 것이다.

3) 소위 ‘선택성’의 의미를 가진 ‘로’[임흥빈(1974)]라면 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성’의 ‘로’는 서술어의 바로 앞에 오는 경향이 있으며, [수혜자]역의 논항과 함께 나타나는 예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로’는 [대상]역의 명사구에 결합하는 것으로 다른 부사격 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대상]에 결합하는 ‘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대부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본고 역시 하귀녀(1994)의 연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황국정(2005)는 다시 (1), (2)의 ‘로’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로’는 대상성(objectivity)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⁴⁾ 또한 이현희(1994)에서 지적된 바 있는 ‘너지다, 헤다’ 등이 구성하는 사유 구문에서 사유 대상에 결합하는 ‘로’ 역시 (1), (2)와 동일한 성격의 ‘로’로 보았다.⁵⁾ 이어진 논의에서 황국정(2009, 2011, 2012)은 현대한국어 동남 방언과 동북 방언에 나타나는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 ‘삼다’ 등의 서술어의 필수 부사어 ‘로’ 등이 모두 중세한국어의 대상성의 ‘로’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이처럼 중세한국어에서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의 언어학적 성격을 구명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줄고(2013)에서 다룬 적이 있다. 그러나 ‘로’ 출현의 의미론적 조건에만 집중한 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통사론적 조건에 대해서는 소홀하였고, 특히 한문 ‘以’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논의가 제2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필자는 줄고(2013)에서 이를 비정형적 격표지(non-canonical case marking) 현상의 일환으로 본 바 있다. 비정형적 격표지 현상은 세계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것이며, 중세한국어에서는 ‘로’ 이외에도 ‘에’에 의해 목적어가 표지되는 현상이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었다. 본고 역시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로’에 의한 [대상] 논항의 표지가 해당 논항의 강조를 위한 통사론적인 초점화 현상일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된다. 제4장에서는 ‘로’의 통사·의미론적 성격을 토대로 할 때, 중세한국어의 ‘로’는 현대

4) 황국정(2005)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성’은 objectivity의 번역어로 ‘목적어성’이라는 역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본고의 [대상]역과는 외연의 차이가 있다.

5) 황국정(2009) 이후의 논의에서는 사유 구문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어의 일부 방언에서 나타나는 목적격 조사 ‘로’의 선대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논의할 것이다. 현대한국어의 방언에서 나타나는 ‘로’에 의한 목적어 표지는 단순한 음운론적 변화의 결과일 뿐이다. 제5장은 결론이다.

2.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

2.1.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의 출현 조건

황국정(2005)에서는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가 네 가지 구문에서 등장한다고 하였다.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면 (3)과 같다.⁶⁾

- (3) 가. 주그닐 쯔 火爐엿 더운 지로 빗복 아라우희 두프면(死者更以爐中煖灰覆臍上下則) <구언 상:73b>
 나. 사오나온 저근 술위로 諸子들홀 주미 올티 몬도다(不應以下劣小車로 與諸子等이로다) <법언 2:75b>
 다. 청흔든 이 아들로 아슬 밧고아지라 혼대(請以允直易僞) <이론 12a>
 라. 能티 몬호므로 能호라 너길씩 이런드로 일후미 大慢이라 (不能으로 謂能홀시 故로 名大慢也 | 라) <능언 10:52a>

(3가)는 위치 이동 구문, (3나)는 수여 구문, (3다)는 전환 구문, (3라)는 사유 구문이다. 여기에서 ‘로’가 결합하는 논항은 모두 이동(transfer)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가)에서는 물리적인 위치 이동의

6) 드물게 다음 예와 같이 ‘로 써’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근 아버 값간도 白金으로 써 사랴를 맞디디 아니하니이다 호고(亡父 | 未嘗以白金으로 委人也 | 라 호고) <내훈 3:65a-b>

대상이 되고, (3나)에서는 소유주 이동의 대상이 된다. (3다)의 ‘로’가 결합한 논항은 성질의 변화, (3라)는 인식의 변화의 대상이다. 변화를 추상적인 이동이라고 본다면, (3가)~(3라)는 모두 이동의 대상, 즉 [대상]역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황국정(2005)의 주장과 다르게 ‘로’로 표지될 수 있는 논항은 모든 목적어가 아니라, [대상]역의 직접 목적어라는 사실은 하귀녀(1994)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필자가 확보한 직접 목적어에 ‘로’ 표지를 하는 서술어의 목록은 (4)와 같다.

- (4) 가. 위치 이동: 감-, 넣-, 놓-, 느리-, 느리오-, 다히-, 담-, 더으-, 두-,
 똥-, 무티-, 박-, 붓-, 브르-, 꾸미-, 썰-, 쓰라-, 엮-, 저지-, 처디-
 나. 수여: 드리-, 맞디-, 받(줍)-, 보내-, 뵈-, 주-, 付屬ᄃᆞ-, 布施ᄃᆞ-
 다. 발화: 니르-, 묻-
 라. 전환: 땡굴-, 밧고-, 삼-, 꾸미-
 마. 사유: 너기-, 헤아리-
 바. 기타: 빙-, 샅-, 쉼-

위치 이동 동사가 가장 수가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상]역을 지니고 있는 논항에 ‘로’가 표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에 제시된 목록 이외에도 더 많은 서술어에서 ‘로’에 의한 [대상]역 표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에서 제시한 목록 중 ‘위치 이동’ 동사는 [대상]역에 ‘로’가 표지되며 [수혜자, 도달점(goal)]역에 ‘에’로 표지될 수 있는 예들만을 추려낸 것이다. 이들 동사에서 ‘-로 -에’로의 표지와 ‘-로 -을’로의 표지에서 ‘로’가 표지된 명사구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 (5) 가. 뽕 니운 지브로 ᄃᆞ 平床을 두푸니(茅棟盖一床) <두언 6:47b>
 나. 오스로 모뎨 둑느니 처 得ᄃᆞ고 바브로 이블 치오느니 심거

일우느니라(衣以蓋形이니 長養而得호고 食以充口 | 니 栽
種而成호느니라) <영가집 상:22b>

다. 헨거스로 그 우홀 싸미면(封其上) <구간 6:29b>

(5)는 위치 이동 동사로 [대상]역의 명사인 ‘띠를 인 집’에 ‘로’가 결합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平床’은 [도달점]역이라기보다는 [피행위주]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5나)의 ‘칙오-’의 경우에서 이것이 더욱 명확히 느껴지는데, 이때 ‘뉘-, 칙오-’가 구성하는 사태는 위치 이동의 세자리 서술어 구문이 아니라 단순한 두자리 타동사 구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위치 이동 동사는 다의어로서 두 개 이상의 어휘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면적인 사건은 (3)에서 기술된 것이나 (5)에서 기술된 것이나 동일하지만, 그것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5)와 같이 ‘-로 -을’로 표지되는 위치 이동 구문에서 ‘로’는 도구격의 조사로 보는 태도를 취한다. 반면, 수여 구문, 전환 구문의 경우 간접 목적어에 ‘을’이 결합하더라도 이를 [수혜자]역으로 본다.

반대로 본래는 위치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로 -에’ 구문을 구성하면서 위치 이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6)과 같은 예도 있다. 이들은 (4)에서 기타로 분류하였다.

(6) 가. 純히 七寶로 三千 大千 世界에 사하 칙와 씨 布施호야도
(純以七寶로 積滿三千大千世界호야 以用布施호야도) <월각
하3-2:81b>

나. 즉재 하늘 고즈로 부터 우희 빛스오니(卽以天華로 而散佛
上호니) <법언 3:108a>

(6)에서 ‘로’가 표지된 논항은 [대상] 논항으로 (3)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 -에’가 모두 나타나지 않지만, [대상]역에 ‘로’를 허용하는 서술어

까지 고려한다면, (4)의 목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서술어는 ‘최오-’ 이외에도 (7)과 같은 예들이 있다.

- (7) 가. 僧伽梨로 두르시고(以僧伽梨付之) <월석 20:4b>
- 나. 쫄로 얻이고(以女娉之) <월석 22:64a>

(5), (7)과 같은 예들은 [도구]인지 [대상]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본고에서 [대상]역에 결합하는 전형적인 ‘로’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이들 역시 본고의 논의 대상과 동일한 성격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로’는 [대상]역을 허용하는 서술어, 즉 이동의 개념을 담고 있는 서술어의 직접 목적어에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하귀녀(1994)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듯이, ‘로’는 출현 위치 제약도 가진다. 언제나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를 선행하는 경우에만 직접 목적어에 ‘로’가 결합할 수 있다.⁷⁾

- (8) 가. 오직 부텃 知見으로 衆生을 뵈여 알외시느니(唯以佛之知見示悟衆生) <석상 13:49b>
- 가'. 衆生이 그에 부텃 知見을 뵈요리라 ㅎ샤(欲示衆生佛之知見故) <석상 13:49a-b>
- 나. 내 이제 받드기 說法홀 싸르미게 陀羅尼呪를 주어 守護호리이다(我今에 當與說法者陀羅尼呪 ㅎ야 以守護之호리이다) <법언 7:110a>
- 나'. *내 이제 받드기 說法홀 싸르미게 陀羅尼呪로 주어 守護호리이다

7) 추후 (7)과 같은 예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 제약은 (가)와 같이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다.

가.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만, [대상] 논항에 ‘로’가 결합할 수 있다.

세자리 서술어 구문에서 [대상] 논항과 [수혜자, 도달점] 논항은 그 위치를 바꾸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8가)와 같이 [대상]의 직접 목적어가 [수혜자, 도달점]의 간접 목적어를 선행하는 경우에만 ‘로’가 [대상] 논항에 결합할 수 있고, (8나)와 같이 후행할 때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필자가 확보한 15세기의 직접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의 예 204개 중, 이를 어기는 것은 (9)의 두 예에 불과하다. (9나)는 하귀녀(1994, p. 40)에서 든 예이다.

- (9) 가. 꽃과 菓實와 못과 심과 欄干 階砌에 七寶로 꾸미고(花果泉池. 欄楯階陛七寶莊飾[釋迦氏譜 1]) <월석 2:27b>
 나. 조호니란 보빅와 玉과로 비시고(淨者란 示之以寶玉호시고) <원각 상1-2:61a>

(9)의 두 예에서 [대상] 논항은 [수혜자, 도달점] 논항에 후행한다. 이때 [수혜자, 도달점] 논항과 [대상] 논항의 위치는 한문 원문의 순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 한문 원문과의 관계

이상을 통해 중세한국어에 나타나는 ‘로’는 [대상]역의 직접 목적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는 언제나 [대상] 명사구가 [수혜자, 도달점] 명사구 앞에 나타날 때에만 표지된다는 제약도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고전 중국어에서 ‘以’의 기능과 유사하다. 고전 중국어에서 ‘以’는 빈어, 즉 목적어 앞에 나타나 목적어 표지로 사용되며, 때에 따라서는 목적어의 위치를 (10)과 같이 서술어 앞으로 옮기는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Pulleyblank (1995), p. 32, p. 121].⁸⁾

8) 목적어에 이가 결합할 때 목적어가 전치되기도 하지만, ‘教人以善謂之忠 <孟子·

- (10) 가. 堯以天下與舜(『孟子·萬章·上』)
 나. 以(之)告孟子(『孟子·公孫丑·下』)

중세한국어도 한문을 저본으로 하는 번역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기능의 以를 직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한문 원문과의 대응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고에서 확보한 직접 목적어를 표지하는 ‘로’는 총 204개이다. 이 중에서 한문 원문에 以가 확인되는 것은 144예로 70.5%에 달한다.⁹⁾ 以가 보이지 않는 것은 42예이고, 나머지 18예는 원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직역이 아닌 문장이다.¹⁰⁾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以가 나타나는

滕文公·上>’에서처럼 서술어에 후행하는 위치에 그대로 있기도 한다. 그러나 중세한국어의 저본이 되는 한문의 세자리 구문에서는 以가 서술어 앞에 놓이는 예가 대부분이다.

한편, 以가 서술어의 앞에 위치하는 것은 문법화 과정에서 생겨난 파생적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즉, ‘[도구]V[피행위주]’ 구문에서 以는 본래 본용언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문법화 과정을 거쳐 개사화한 것이다. ‘[도구]를 이용하여 [피행위주]에 V’ 구문이기 때문에, ‘[도구]’가 ‘V[피행위주]’ 앞에 오는 것이 더 도상적이다. ‘[이대상] V[수혜자, 도달점]’ 구문은 이 구문으로부터 문법화한 구문일 것이다. 따라서 以가 충분히 문법화되지 않았거나[안효정(2016) 참조], 구문 전체가 문법화되었을 경우[Traugott & Trousdale (2013) 참조], 以의 위치는 본용언의 앞으로 고정되었을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 반영된 한문은 以의 문법화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의 것일 수 있는 것이다. 以가 본용언으로서의 용법과 연관성이 다분히 희석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V[피행위주]’의 뒤에 위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 9) 以의 위치는 목적어의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다. 아래의 예처럼 직접 목적어는 以의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귀시량 외(2012), pp. 193-194 참조].

가. 이 희오 조흐니로 그 우희 둥고(鮮白淨潔로 以覆其上호고) <법언 2:140a>

나. 厚호 祿으로 너를 주시느니(厚祿으로 以奉子호시느니) <내훈 3:27b>

이처럼 以의 위치가 목적어의 앞뒤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어의 어순이 SOV로부터 SVO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Xu(2006) 참조].

- 10) 이 수치는 황국정(2005, p. 124)의 59.3%라는 수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황국정

비율은 차이를 보인다. 빈도가 높은 몇몇 서술어의 예를 들면 <표 1>과 같다.

<표 1> 서술어의 종류와 한문 원문의 이

서술어	以 있음	以 없음	원문 없음
맞다-	11	1	6
딩글-	5	1	2
뵈-	12	0	0
분-	7	1	1
빙-	18	0	0
썩리-	3	5	0
주-	19	3 ¹¹⁾	0
布施호-	6	10	1

그런데 본고의 70.5%라는 비율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우선 이가 보이지 않는 예들 중 (11)과 같이 이가 아닌 빈어를 이끄는 다른 글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11) 가. 네 靑色 諸天이 돌바리 네호로 우리를 주더니(我念往昔靑色諸天 將四石器 來奉我等[佛本行集經 32]) <월석 4:57a>
 나. 눅젓 그트로 므레 저저 藥을 무터 목 안해 디그라(用銅筋頭於水中蘸 令濕搵藥末 點於咽喉中) <구언 상:45b>

(11가)에서는 將이, (11나)에서는 用이 목적어 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한문에서 본용언으로 쓰인 것인지, 개사로 쓰인 것인지 판단하기는

(2005)에서 목록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본고가 확보한 목록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11) 1예는 將으로 나타난다. (11가) 참조.

어려우나 이가 이끄는 구문과 동일한 어순이며 ‘로’로 표지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통적이다.

또한 원문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원문을 유추할 수 있는 예들도 있다.

(12) 가. 大闕에 나실 제 二萬夫人들히 明珠로 보내스븐니 <월천기356>

가'. 二萬夫人以眞珠各一貫以與太子。<太子須大拏經 第1卷>
나. 純히 七寶로 三千大千世界에 사하 지와 써 布施하야도
<월각 서:62b>

다. 내 正法眼藏으로 秘密히 네게 맞디노니(正法眼藏 涅槃妙
心實相無相 微妙法門 分付於汝[浮石禪師語錄 8]) <월석
20:4b>

(12가)는 『월인천강지곡』의 일부로 한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월인석보 20』의 해당 부분 저경인 『太子須大拏經』 第1卷을 살펴보면,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12나)는 원문이 없으나 (6가)와 동일한 문장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12다)는 역시 『월인석보 20』의 예로 내용상 저경은 『浮石禪師語錄』으로 보이지만, 직역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위와 같은 불확실한 예들을 제외하면 ‘로’로 표지된 명사구가 있는 한문 원문에 이가 결합한 예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한문 원문에서 [대상]역에 표지되는 이와 중세한국어의 ‘로’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귀녀(1994, p. 112)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으로’의 출현은 다분히 한문 번역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본고 역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문 원문에 이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의 ‘로’는 한문

12) 『월인석보 20』의 해당 부분은 훼손되어 어떻게 격표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가와사키 외(2013)에서는 이 부분에 ‘로’가 없는 것으로 복원하였다.

원문의 이를 수동적으로 번역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번역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3.2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3.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의 성격

3.1.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로서의 ‘로’

격표지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한 가지는 두 개 이상의 논항이 나타날 때, 이들의 차이를 드러내는 구별(discriminating) 기능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해당 논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기능을 지시하는 표시(indexing) 기능이다. 세계의 여러 언어를 살펴보면, 대격 언어의 경우 자동사의 주어 논항에 결합하는 격은 무표지인 예가 많고, 타동사의 목적어에 표지되는 격은 유형의 표지를 지니는 예가 많다. 이는 논항이 두 개 이상일 때, 구별 기능을 하는 격표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표시 기능은 격표지를 통해 두 논항 사이의 차이뿐 아니라 각 논항에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격표지 방식은 구별 기능에 비해 비경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별 기능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논항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더 경제적인 표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서술어가 표현하는 사태를 논항에 다시 한 번 잉여적으로 표시하여 정보의 올바른 전달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도 할 수 있다. (13)의 예를 보자.

- (13) 가. Ammu-i-n karhu-n [Kiparsky (1998), p. 267]
 shoot-past-1sg bear-Acc.
 ‘I shot the/a bear.’

- 가'. Ammu-i-n karhu-a
 shoot-past-1sg bear-Partitive
 'I shot at the/a bear.'
- 나. tʃanaqan-as bats' tʃ'awana. [Tsunoda (1981), p. 404]
 hunter-ERG wolf-ABS killed
 'The hunter killed the wolf.'
- 나'. inssu-da (žindargo) was wixāna.
 father-LOC one's child-ABS saw
 'The father saw the child (of his own).'

(13가)와 (13가')는 터키어의 예로 여기에서 'karhu'는 공히 목적어이지만 격표지가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 (13가)와 (13가')의 차이는 총을 쏜 행위의 결과에 있다. (13가)에서는 총을 쏜 결과 곰이 맞았다는 것을 함의하지만, (13가')는 이를 함의하지 않는다. 의미적 격표지를 함으로써 해당 서술어의 행위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다. (13나)와 (13나')는 아바르어의 예로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목적어의 격표지가 달라지는 비정형적 격표지[Differential Object Marking, Tsunoda (1981, 2015), Malchukov (2015) 등 참조]의 예이다. 서술어가 기술하는 사태의 타동성(transitivity)의 높고 낮음에 따라 목적어에 결합되는 격표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전형적인 목적어 표지인 대격 표지는 타동성이 높은 사태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목적어에 결합하고, 사태의 타동성이 낮은 지각 동사나 사유 동사 등에는 처격, 부분격 등의 다른 격표지가 결합한다.¹³⁾¹⁴⁾

13) 다양한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적 격표지 현상에 대해서는 ValPaL (Valency Patterns Leipzig, <http://valpal.info/>)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수 있다. 현대한국어에도 다음과 같은 예를 서술어의 의미에 따른 비정형적 목적격표지로 볼 가능성이 있다.

- 가. 나는 그 이야기에 주목했다.
 나. 나는 회의에 참석했다.
 다. 철수는 빙판길에 주의했다.

줄고(2013)에서는 중세한국어에 나타난 ‘로’에 의한 목적어 표지 역시 (13나)와 동일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즉, 대상의 이동을 함의하는 서술 어일 때 [대상]역의 직접 목적어에만 ‘로’가 표지된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으로, 목적어의 영향입음성이 [피행위주]보다 낮아 대격 조사 이외의 조사로도 표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론에는 중세한국어에 또 다른 비정형적 격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주었다.

- (14) 가. 窮子 | 見父브터 아랜 곧 小에 迷惑호야 大에 두리는 이리
 라(自窮子見父已下는 即迷小怖大之事 | 라) <法華 2:197b>
 나. 지손 罪에 제 붓그리디 아니호려 홀썩 일후미 慚이오
 <法華 6:175b>
 다. 막스몬 고은 곳 펼논 가지에 슬노라(心傷艷豔梢) <杜詩
 14:9b>
- (15) 가. 일 善業에 혜여 第一을 사막니 일후미 迷集이오 <月釋
 11:122a>
 나. 舍利弗이 法說에 호마 아라 부터 드웁 들 제 알썩(身子既
 悟法說 自知作佛) <月釋 12:2b>

(14)는 심리 술어 구문이다. 이현희(1994)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중세한국어의 심리 술어 구문의 목적어는 대격 조사 ‘을’이 결합하기도 하지만 (14)와 같이 처격 조사 ‘에’가 결합하기도 한다. 또한 (15)와 같이 사유 동사와 인지 동사도 사유 대상과 인지 대상에 처격 조사 ‘에’가 결합하는 예가 보인다. 이들 역시 목적어의 영향입음성이 낮아 대격 이외

14) 격표지의 구별 기능과 표시 기능은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즉, 한 언어에서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들이 많다. (13나)의 아바르어 역시 주어에 결합하는 절대격이 무표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구별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 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중세한국어의 목적어 표지 체계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른 비정형적 격표지를 가진 표시 기능 체계로, 서술어의 위계는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졸고(2013, p. 66)에서 제시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졸고(2013)에서는 ‘접촉/충격’에 대해 [대상]역만을 고려하여 ‘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으나, [수혜자, 도달점]역이 ‘을, 로’뿐 아니라 ‘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 역시 ‘접촉/충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자극]역에 결합하는 ‘이’를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로 보았으나,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보류한다.

완전 유효 행위	유효행위	접촉/충격	탐색
	로	로/에	에
을	지각	인지·사유	심리(감정)
	로	에	에

[그림 1] 타동성에 따른 격표지 [졸고(2013), p. 66에서 수정].

3.2. 초점을 이끄는 표지로서의 ‘로’

[대상]에 표지되는 ‘로’를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다른 여러 언어들에서 보이는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와 성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해당 격표지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3나)에서 예로 든 아바르어를 포함하여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목적격 표지가 달라지는 언어는 격표지 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세한국어의 경우 모든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가 대격 조사 ‘을’로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로’에 의한 표지와 ‘을’에 의한 표지

가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3가) 유형의 격교체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로’와 ‘을’은 아무 이유 없이 교체한다고 보거나, 통시적인 관점에서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 체계가 과거의 흔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중세한국어 이전의 자료에서 비정형적 목적어 체계가 우세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승욱(1973), 황국정(2005) 등에서 구결 자료와 향가 자료에 있는 ‘로’에 의한 목적어 표지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로’에 의한 목적어 표지라고 하더라도 중세한국어의 그것과는 성격이 달라 또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중세한국어의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는 현대한국어에도 보이는 처격 조사 ‘에’에 의한 것만으로 두고 [대상]역에 결합하는 ‘로’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⁵⁾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역에 결합하는 ‘로’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간접 목적어에 선행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수혜자, 도달점] 논항은 [대상] 논항에 선행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현대한국어의 사전 기술도 그러하고, 중세한국어에서도 정확한 빈도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수혜자, 도달점] 논항이 [대상] 논항에 선행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고 많은 것으로 보인다.¹⁶⁾ 이는 세자리 서술어 구

15) ‘에’ 역시 ‘을’로 교체되며, 한문 원문의 於와 관련이 깊다. 물리적 위치가 심리적 위치로 은유적 확장을 거친 구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와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에도 ‘에’에 의한 비정형적 격표지와 유사한 현상이 보인다는 점에서(각주 13 참조), 일단은 ‘에’는 비정형적 격표지로 보기로 한다. 예문 (5)에서 본 것처럼, ‘-에’와 ‘-을’에 의한 표지에 의미 차이가 느껴진다는 사실도 참고된다.

16) 이는 한국어가 SOV 언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SVO나 VSO처럼 서술어가 목적어를 선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와 같이 세자리 서술어 구문에서 간접 목적어 표지가 사용되는 언어의 경우 [대상] 논항이 [도달점, 수혜자] 논항에 선행하는 경우가 우세하다고 한다[Malchukov et al. (2010)]. 한국어는 SOV 언어이므로 이 관계가 반대로 나타날 것임이 예상된다. 한재영(1996), 하귀녀

문에서 일반적으로 [수혜자, 도달점] 논항이 유정물이기 때문에 부정물인 [대상] 논항보다 의미상 더 현저한 논항이 되기 때문이다.¹⁷⁾ 한국어에서 초점을 받는 논항은 대부분 문장의 앞부분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수혜자, 도달점] 논항이 [대상] 논항에 선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대상] 논항이 [수혜자, 도달점] 논항에 선행하는 본고의 예는 유표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 성분이 앞쪽으로 전치되는 경우, 초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장은 [대상] 논항에 초점을 부여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즉, ‘로’는 해당 문장에서 초점이 되는 요소는 [수혜자, 도달점] 논항이 아니라 [대상] 논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지라는 것이다.

이는 한문 원문에 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대상] 논항이 서술어와 [수혜자, 도달점] 논항의 앞에 있을 때에 ‘로’에 의한 격표지가 실현된다는 사실로부터 유추 가능하다.

(16) 가. 香油로 싸해 썩리고 한 일흠난 곳 비흐며(香水灑地호고 散衆名華호며) <법언 2:197a>

가'. 香油를 싸해 썩리고 한 일흠난 곳 비흐며 <월석 13:12a>

나. 財寶로 주어 濟度호리라(資財로 給濟호리라) <영가집 하:19b>

다. 恒沙애 ㄹㄱ기 사흔 七寶로 두루 三千에 布施호니(滿積 恆沙七寶로 周迴布施三千호니) <금삼 2:72a>

(1994) 등에서 수여 구문을 ‘여격어 중심 구문’으로 본 데에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명사구의 현저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Lockwood *et al.* (20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18) 초점이 부여되면 타동성은 높은 것으로 취급된다. 타동성이 높아야 할 위치에서 높은 타동성의 ‘을’ 대신 낮은 타동성을 표시하는 ‘로’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이 ‘로’가 비정형적 목적어 표시 현상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6)에서 목적어는 모두 서술어의 앞으로 전치되어 있다.¹⁹⁾ 이때 언해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한 가지는 (16가)와 같이 대격을 표시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16가)~(16다)와 같이 ‘로’를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로’로 표시하였을 때, ‘로’는 일반적으로 직접 목적어에 표시되지 않는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효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초점도 더 많이 모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언해자는 목적어 전치의 표현적 효과를 고려하며 ‘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로’를 유효적 어순과 표현적 효과에 의해 나타난 격표지로 처리하는 것이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의한 목적어 표지가 대조적 맥락에서 다수 보인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렇다면 여기에서 ‘로’는 무엇일까? 이 ‘로’는 도구격 조사 ‘로’와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도구가 행위자의 행위를 피행위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²¹⁾이 [대상]이 행위자로부터 [수혜자, 도달점]로 이동한다는 사실과 은유적으로 유사하며, [대상] 논

19) (16)에서 이를 생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생각이 빈번한 개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 목적어를 재지시하는 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참고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구문을 단순히 목적어가 전치된 구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20) 이 사실은 고전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SVO의 어순을 가진 고전 중국어에서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오는 구문은 유효적인 구문이다. Sun (1991, 1993)은 이가 이끄는 목적어가 서술어의 앞에 오는 예들을 분석하여, 목적어와 동일 지시체가 서술어의 뒤에 오는 경우보다 더 가까운 선행절(2.81절 vs. 17.64절)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바로 선행하는 문맥에 해당 목적어에 해당하는 지시체가 존재하거나 대조의 맥락에서 ‘以 + NP’ 목적어가 서술어의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un (1993), p. 19). 이는 서술어를 선행하는 ‘以 + NP’ 목적어가 일종의 대조 초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세한국어의 ‘로’에 의한 목적어 표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선행하는 지시체와 목적어와의 거리는 중세한국어의 예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중세어의 경우, 선행하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67 vs. 37). 또한 선행하는 지시체가 있을 경우라도, 그 거리는 6.26절로 고전 중국어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 이승욱(1973)에서는 이를 ‘경과성’이라고 하였다.

향이 이동 행위를 한정하는 ‘수단· 도구’로 해석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하귀녀(1994)] 등을 고려한다면 [대상]에 결합하는 ‘로’는 도구격 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중세인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을 보자.

(17) 香油로 짜해 쓰료몬 妙智로 衆生이心地 조케 흐샤미오(香水 洒地者는 以妙智로 淨衆生心地也 | 오) <법언 2:197a>

(17)은 바로 위에 나온 ‘香油로 짜해 쓰리고(香水灑地호고) <법언 2:194b>’에 대한 주석이다. 원문과 주석이 일대일로 대응되기 때문에 ‘香油로’는 ‘妙智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妙智로’는 분명히 수단· 도구를 나타내는 논항인바, 선행하는 ‘香油로’ 역시 일종의 도구와 같은 요소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³⁾

22) 홍윤표(1969)는 도구격과 처격이 서술어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관계가 더 긴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귀녀(1994, p. 41-42)는 세자리 서술어에서 부사어가 서술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일반화가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구문이 고전 중국어로부터 차용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중세한국어 번역문에서 보이는 ‘로’ 논항과 서술어의 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전 중국어에서 이가 이끄는 목적어는 서술어와 인접하기 때문이다.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사와 간접 목적어의 어순 차이 때문에 중세한국어에서는 ‘로’ 논항과 서술어의 거리가 멀어진 것뿐이다. 따라서 이 구문은 구문화되어(constructionalized) 어순이 그대로 굳어진 구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3) 세자리 서술어 구문에서 [대상] 논항에 도구격이 주어지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단적인 예로 고전 중국어는 물론, 영어에서도 ‘provide’와 같은 동사의 [대상] 논항은 도구격 ‘with’로 표현된다. 다만 [수혜자, 도달점] 논항이 ‘에’로 실현된다는 점은 격표지의 구별 기능의 관점에서 특이한 것이다[Malchukov et al. (2010) 참조].

4. 현대한국어 방언의 ‘-로’와의 관련성

주지하다시피, 동남 방언과 동북 방언에서는 음상이 ‘로’와 유사한 요소가 목적어를 표지하고 있다[이기갑(2003) 참조]. 이들은 대격 조사 ‘을/를’이 형태와 음운 변화를 겪어 형성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황국정(2011)은 이들 방언에서 보이는(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경주 방언에서 보이는) 대격 표지 ‘로’를 지금까지 살펴본 중세한국어의 세자리 서술어 구문의 [대상]역을 가지는 목적어 표지 ‘로’와 연관 짓고 있으며,²⁴⁾ 이 논의는 황국정(2012)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황국정(2011, 2012)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대한국어 방언에 나타나는 목적어 표지 ‘로’는 중세한국어의 직접 목적어 표지 ‘로’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황국정(2011)은 현지 조사를 통해 경주 지역어에서 대격 표지가 ‘으, 르, 로’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여러 가지 구문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다양한 구문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황국정(2011, pp. 279-280)은 체언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경우에는 ‘로’로 실현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으(을)’가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음운론적인 경향은 뚜렷하지만, 자음 말음인 ‘ㄴ, ㅁ, ㅇ’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으로’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를 음운론적인 이형태로 볼 수 없고 중세한국어 ‘로’의 후대형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논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중세한국어의 목적어에 표지되는 ‘로’의 특성을 경주 방언의 ‘로’가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경주 방언의 대격 표지 ‘으, 르, 으로’의 이형태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셋째, 해당 지역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24) 이는 이미 이승욱(1973)에서도 제기된 가능성으로, 안동 방언, 함경도 방언 등의 예를 들고 있다.

론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것이 음운 변화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경주 방언의 ‘로’는 세자리 서술어 구문의 직접 목적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격 조사가 나타날 만한 모든 위치에 나타난다. 중세한국어의 ‘로’의 성격을 제3장에서 제시한 것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대상] 논항에 결합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로’가 이들 방언에서 유추적 확장을 겪은 것으로 보아야 할 텐데, 이런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둘째와 셋째 문제를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 방언의 형태음운사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르’와 ‘으르’가 동일한 형태의 이형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둘은 별개의 형태소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동남 방언의 형태음운사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주 방언에서 ‘ㄴ, ㄹ, ㅇ’ 말음 어간 뒤에 결합하는 {오로}는 모음과 ‘ㄹ’ 말음 어간 뒤에 나타나는 {로}와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자음 뒤에 나타나는 {으(또는 을)}과 동일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최명옥(1980, pp. 47-50)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ㄴ, ㄹ, ㅇ’ 어간 뒤에 나타나는 {오로}라는 형태는 ‘을’의 중첩형 ‘을을’로부터 음운 변화를 겪은 형태이다. 즉 대격조사 {오로}는 {으를 > 으르 > 으로}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모음과 ‘ㄹ’ 말음 뒤에 결합하는 {로}의 이형태가 아닌 것이다. 이 결론은 방언에서 매개 모음을 가지는 조사의 중첩이 있으며, 어절 말음의 탈락 역시 빈번하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이 방언에서 보조사 ‘은’은 중첩되고 어절 말음이 탈락되어 {으는 > 으느, 이노}로 사용되고[최명옥(1980), p. 49], 보조사 ‘만’이 {마}로 사용된다는 사실[이기갑(2003), p. 45]이 참고된다. 즉, ‘ㄴ, ㄹ, ㅇ’ 뒤에 나타나는 {오로}는 이 방언의 {으(을)}과 어원을 공유하는 것이며, 모음과 ㄹ 뒤에 나타나는 {로(혹은 르)}는 ‘를’로부터 음운·형태 변화를 겪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방언에서 나타나는 {로} 계열의 목적격 조사는 모두 대격 조사 ‘을, 를’의 후대형인 것이다.²⁵⁾

중앙어에서는 이미 소실된 중세한국어의 단편이 방언에 남아 있기는 하다. 동남 방언과 동북 방언에 남아 있는 성조, 제주어에 있는 ‘·’의 반사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세한국어의 ‘로’와 현대한국어 방언에 남아 있는 ‘로’ 혹은 ‘르’는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 또한 음운 변화에 의해 간단히 설명이 가능한 문제이다. 역사언어학의 설명은 간명할 수록 좋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현대 방언에 나타나는 ‘로’ 혹은 ‘르’는 중세한국어의 ‘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연한 음상의 일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한국어에는 세자리 서술어의 [대상] 논항에 부사격 조사 ‘로’가 표지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대상] 논항이란 물리적 또는 추상적 이동의 대상이 되는 개체를 뜻하는 것으로 위치 이동, 수여, 발화, 전환, 사유 동사 등이 [대상] 논항을 필요로 한다. 이때 ‘로’는 반드시 [수혜자, 도달점] 논항에 선행하여야 한다. [대상] 논항에 ‘로’가 표지되는 것은 한문 원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가 없더라도 목적어가 전치되어 있는 경우, 이 목적어에 ‘로’가 표지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한국어에는 없는 것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첫째, 이를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세계 여러 언어에서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목적어의 격표지가 바뀌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25) 황국정(2011)은 경주 방언에서 도구격의 ‘로’가 나타날 자리에 대격 조사가 쓰이는 것을 또 다른 논거로 들었는데, 이는 음운 변화로 인해 동음이의어가 되어 두 조사가 합류(merge)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주 방언의 ‘로’가 중세한국어의 ‘로’와 동일하다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중세한국어도 이와 같은 유형의 언어로 보는 것이다. 중세한국어에는 [대상]역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 이외에도 [사유 대상], [자극] 등의 의미역을 가지는 목적어에 결합하는 ‘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로’는 목적어가 전형적인 목적어의 특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와는 다르게 ‘로’는 대격으로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 ‘로’를 전치된 목적어의 유표성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 표지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방향이다. 중국어로부터 차용된 구조로 이해하며, 이때 ‘로’는 도구격 조사로 서술어의 행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현대한국어 동남 방언과 동북 방언의 일부에서 대격 표지가 ‘로/르’로 실현된다. 이들은 각 방언에서 대격 조사 ‘을/를’이 음운 변화를 겪어 형성된 형태로, 중세한국어의 [대상] 논항에 표지되는 ‘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요소이다.

목적어와 ‘로’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이면서 언어학적인 고찰을 하려고 노력하여 일정의 성과를 얻은 것 같으나, 본고에서는 언해문에 나타난 ‘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한문 원문의 이가 위치에 따라 어떻게 언해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서술어와 직접 목적어의 뒤에 이가 나타날 경우, ‘더러우니란 디새와 돌과를 뵈사(穢者란 示之以瓦礫 訖사) <원각상 1-2:61a>와 같이 ‘로’가 아닌 ‘을/를’로 언해한 예가 보인다. 이가 서술어와 직접 목적어의 뒤에 있는 예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예에서 이가 서술어를 선행할 때와 언해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로’의 표지가 어순 효과에 의한 것인지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 저】

- 가와사키 케이고·스기야마 유타카·정혜린(2013), 「월인석보 권20 휘손 부분의 복원과 이용」, 『국어학』 67, pp. 251-315.
- 김태우(2013), 「중세한국어 자·타 양용동사에 대한 기능·유형론적 연구」, 국어연구 239.
- 안효정(2016), 「고대한어 ‘이’의 품사와 의미에 대한 연구 — 통사·의미상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승욱(1973), 『국어 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1974), 「{로}와 선택의 양태화」, 『어학연구』 10-2, pp. 143-159.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하귀녀(1994), 「중세국어 세자리 서술어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 홍윤표(1969), 「15세기 국어의 격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국정(2005), 「조사 ‘-로’의 ‘대상성’에 관한 통시적 연구」, 『형태론』 7-1, pp. 111-134.
- _____(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 _____(2011), 「경주 지역어의 대상성 ‘-로’ 구문에 관한 연구 — 조사 ‘-로’와 ‘-을’이 기원적으로 이형태 관계였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어학』 50, pp. 261-288.
- _____(2012), 「현대국어의 필수적 ‘-로’ 논항의 실현 원인」, 『국어학』 63, pp. 341-360.
- 귀시량·탕쥬판·허주잉·장사오위·텐루이쥬안(2012), 김혜영 외 역, 『고대중국어』, 역락.
- Kiparsky, P. (1998), “Partitive Case and Aspect”, in Butt, Miriam and Geuder, Wilhelm (eds.), *The Projection of Arguments: Lexical and Compositional*

- Factors*, Stanford CA: CSLI, pp. 265-307.
- Lockwood, H. and M. Macaulay (2012), “Prominence Hierarchies”, *Language and Linguistic Compass*, 6/7, pp. 431-446.
- Malchukov, A. (2015), “Valency Classes and Alternations: Parameters of Variation”, Malchukov, A. & B. Comrie (eds.), *Valency Classes in the World’s Languages*, Berlin/Bostn: Walter de Gruyter, pp. 73-130.
- Malchukov, A., M. Haspelmath, and B. Comrie (2010), “Ditransitive Constructions: A Typological Overview”, in Malchukov, A., M. Haspelmath, & B. Comrie (eds.), *Studies in Ditransitive Constructions: A Comparative Handbook*,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pp. 1-64.
- Pulleyblank, E. (1995),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Vancouver: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Sun, C. (1991), “The adposition YI and word order in Classical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9 (2), pp. 202-218.
- _____ (1996), *Word-Order Change and Grammaticalization in the History of Chines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weetser, E. (1999),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and G. Trousdale (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sunoda, T. (1981), “Split Case-Marking Patterns in Verb-Types and Tense/Aspect/Mood”, *Linguistics* 19, pp. 389-438.
- _____ (2015), “The Hierarchy of Two-place Predicates: Its Limitation and Uses”, in Malchukov, A. & B. Comrie (eds.), *Valency Classes in the World’s Languages*, Berlin/Bostn: Walter de Gruyter, pp. 1597-1625.
- Xu, D. (2006), *Typological Change in Chinese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9년 4월 16일

심사 완료일: 2019년 6월 3일

게재 확정일: 2019년 6월 4일

ABSTRACT

A Study on the ‘ro’-marked Object in Middle Korean

Kim, Taewoo*

The oblique case marker ‘ro’ can mark the [THEME] argument of ditransitive sentences. The [THEME] argument refers to an entity that undergoes physical or mental transfer. Movement verbs, give-type verbs, say-type verbs, converse-type verbs, and mental activity verbs require a [THEME] argument as a direct object. In this case, the ‘ro’-marked direct object must precede a [RECIPIENT, GOAL] argument. The Old Chinese character 以 highly influences the ‘ro’ marking on the [THEME] direct object of ditransitive sentences in Middle Korean. However, although there is no 以, as long as the direct object is preposed, ‘ro’ can mark the direct object. We cannot observe this in Present Day Korean. The ‘ro’ marking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we can view ‘ro’ object marking as a differential object marking. The differential object marking, the alternation of case markers according to the meaning of predicates, is widespread cross-linguistically. But, the detailed features of ‘ro’ object marking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languages. Considering the difference as crucial, we can regard it as a markedness marking strategy. This construction seems to be the borrowing from the Old Chinese, and under

* Researche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this view, ‘ro’, as an instrumental marker, delimits the meaning of a verb. Meanwhile, there are accusative marker ‘ro/ri’ in a few dialects in Present Day Korean. This marker stems from the accusative marker ‘il/riil’ through sound change and morphological change, and is not related to the Middle Korean direct object marker ‘lo’ which we discussed so far. The homophony is only a coincidence.